

<2018년 9월 8일 토요일 새벽, 주 말씀>

◎ 금주의 말씀은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에 대해 말씀했습니다.

핵심은

“<주>를 하나님의 땅, 주의 땅으로 돌아오게 한다.” 입니다.

이 <핵, 머리>를 중심으로

각 지체에 해당되는 말씀을 수백 가지로 연결해서 말씀했습니다.

1. <머리>가 돌아오면, <지체들>도 돌아온다.
2. <하나님의 핵, 땅의 핵, 주>가 하나님과 성령님과 같이 돌아오니, 그다음에 <따르는 지체들>도 하나님의 거룩한 땅으로 돌아오고, 섭리사로 돌아오게 됐다. - 하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신 대로 됐다.
3.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으로 돌아왔으면, ‘본래 했던 일’ 을 다시 해야 된다. 꿈에 그리던 일을 하고, 희망의 일도 하고, 그리고 얻은 것들을 같이 사용하고 누리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 주를 사랑하며 사는 것이다.
4. 예전에는 ‘같이 살기 위해 연애하는 기간, 택함을 받는 기간’ 이었다면, 휴거된 이후로는 ‘하늘과의 결혼식 이후 같이 사는 기간’ 이다. 고로 다시 돌아온 것은 ‘같이 살기 위해서’ 돌아온 것이다. - 이것을 깨달아야 된다. 같이 안 살면, 돌아온 보람

이 없다.

5. <같이 산다는 것>은 엄청나게 어려운 것이다. 싸우지 않고, 헤어지지 않고, 평화롭게 살면서 사랑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이 상을 누리며 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고로 이것을 위해 전적으로 잘해야 된다. 사탄, 흑암이 아예 침범하지 못하게 해야 된다.
6. <휴거를 이루기 전, 결혼을 하기 전>에는 각종 사탄의 세계와 흑암의 세계, 적들의 세계로 인해 어려운 일이 많았다. <상대, 신부>가 ‘사랑의 주체’를 얻을 때까지 그런 어려움과 환난을 많이 겪었다.그러고서 결혼식을 했으니, 이제는 ‘상대 관리, 주체 관리, 서로 관리’를 해야 된다. 서로 사랑하고, 인정하고, 상대의 마음을 알고 살아야 된다.
7. 그냥 살기도 하지만, ‘이상적으로, 기쁨과 사랑으로’ 살려면 머리를 많이 써야 된다. 지금은 <같이 사는 때>이니, ‘지체들’도 머리를 많이 쓰고, ‘머리가 되는 주’도 머리를 많이 써야 된다.
8.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땅에서 솟는 지혜, 사람의 지혜>도 천층만층으로 어떤 것은 차원이 높기도 하지만, 근본은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지혜’여야 된다.
9. <하나님의 지혜>를 받고서, 그 지혜로 해야 된다.

10. <하나님의 지혜>를 받으려면, ‘기도’ 해서 얻어야 된다.
11. 아픈 자들을 보며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관리>를 잘못해서 아픈 것이 90% 이상이다.” 하셨다.
12. <관리>를 잘하여라.
13. <화분의 꽃>도 관리를 잘못해서 죽는 것이 95% 이상이다.
14. <자기 관리>를 목숨 걸고 해야 된다.
15. <생명>은 목숨을 걸어야 관리가 된다. <관리 못한 죄>를 범치 말아라.
16. <건강>은 하나님께 기도도 하고, 또 자기가 목숨 걸고 관리하고, 의학적으로도 관리해야 된다. 그래야 건강이 다시 돌아온다.
17. “돌아오게 하리라.” 한 말씀대로, 사람들의 건강이 돌아오게 해 주는 역사도 일어났다. 하나님은 지구상의 수많은 아픈 자들과 병든 자들을 치료해 주셨다.
18.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으로 돌아왔으면, 결혼하고 살듯이 열심히 멋있게 살아야 된다. - 사는 것은 천층만층이다. <주>도, <따르는 자들>도 연구하고, 기도하고, 지혜를 받아서 해야 된다.

◎ 금주에는 특히 돌아온 사람들이 더욱 많이 있었습니다.

선생이 나온 다음부터,
선생이 이 땅에 돌아오듯 많은 사람들이
지난 6개월 동안 돌아왔습니다.

100~200명이 아니라, 아마 수천 명이 될 것입니다.

신앙의 환난 때문에 나갔던 사람들, 자기 책임을 못 한 사람들,
전도돼서 새롭게 온 사람들이 돌아오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 그리고 <새벽예배>에도 많이 돌아왔습니다.

<머리>가 돌아오니, ‘새벽예배’에도 모두 돌아온 것입니다.
마치 장마가 저서 댐의 물이 넘쳐흐르듯
사람이 차고 넘치는 교회도 있고,
물이 차오르듯 차오르고 있는 교회도 있습니다.

주님의흰돌교회는 새벽에 거의 꽉 찹니다.
광명교회도 많이 차고 넘칩니다.

◎ 이제 금주 말씀의 핵심을 해 주겠습니다.

나머지는 각자 생활하면서 해야 됩니다.

19. 지금은 하나님의 거룩한 땅으로 하나님도, 성령님도, 성자도 돌아오는 역사가 됐다.

20. <핵>을 잊으면 안 된다. <핵>이 돌아왔다.

21. 전능하신 하나님이 돌아오시어 ‘하나님의 거룩한 땅’에 좌정하고 계신다.

22. <월명동>은 ‘하나님이 택하신 땅, 거룩한 성역’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고역의 역사를 마치고 모세를 중심으로 나와 선조들의 땅으로 돌아왔듯, 또 야곱이 외가에서 고향으로 돌아왔듯, ‘하나님의 땅’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다.

23. 한번 돌아오기만 하면, ‘역사의 축복을 받는 땅’에서 살게 된다.

24. 선생이 <돌아오기 전의 기간>은 ‘환난의 때, 혹은 한 때 두 때 반 때 기간’이라고 분석하는 것도 맞지만, <핵심>은 지구 땅 곳곳을 누비면서 하나님의 시대 복음을 전하고 조건을 세우며, “네가 밟은 땅은 네 땅이 되게 하리라.” 하신 하나님의 역사적 뜻을 이루는 기간이었고, 또 하나님의 성경 역사의 때를 맞추기 위한 기간이었다. 고로 그 기간에 지구 땅 곳곳을 누비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도, 축복하실 때도 시중을 들었고, 또 천주교와 기독교가 480년 동안 싸웠는데 “보낸 자 예수님을 중심으로 구원이 같되, 차원이 다를 뿐이다.” 하고 말씀해주어 서로 손잡고 하나 되게 만들었다. 고로 “구원은 하나다.” 시인하게 해 주었다. - 이러한 일들을 하러 나간 것이지, 환난 때 쫓겨난 것이 아니다. 그러나 <쫓겨났다는 사고로 보는

사람들, 반대자들, 가인들>은 자기들이 쫓아내서 나간 것으로 생각한다. 마치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을 팔아서 애굽으로 갔다고 푸는 격이다. <하나님이 풀 때>는 형제들이 팔았거나, 안 팔았거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 ‘애굽의 총리대신’을 하기 위해 나갔어야 했다.

25. <요셉의 형제들>이 평소에 요셉을 시기, 질투하고 미워하니까 사탄이 형제들을 쓰고 한 것이지만, 평소에 시기 질투 하지 않고 사이 좋게 지냈으면 요셉은 형제들에게 그런 일을 안 당하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애굽으로 갔을 것이다. <야곱>도 그러하다.

26. <예수님>도 십자가로 인해 시대의 사명을 끝까지 못 했지만, 했으면 이방에 복음을 전하러 가셨을 것이다.

27. <아담>이 타락하지 않고 사명을 했어도 ‘예수님’은 와야 되고, 그와 같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지 않고 살아서 역사를 썼어도 ‘시대 구원자’는 나타나야 된다. <시대>가 다르기 때문이다.

28. <자기가 환난과 어려움을 받은 것>도 쪼개서 봐야 된다. <악한 자들, 나쁜 사람들> 때문에 환난을 받는 것도 있으니, 오해하지 말고 하나님을 이해해야 된다. 고로 ‘내가 저 사람 때문에 떠났다. 형제 때문에 떠났다. 그래서 내가 세상에서 얼마나 고생하고 몸부림쳤는지 모른다.’ 하는 생각을 버려야 된다. <성공한 사람들>은 “<화>가 ‘복’이 됐다.” 하고 푼다. 더 좋게 풀

면,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가는데, 바람이 분 것이다.” 한다. 이같이 풀면서 모든 삶을 살아가야 된다.

29.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온 세상이 그 말씀대로 해야 된다. 고로 국가 대표였던 운동선수가 외국 생활을 정리하고 금주에 한국으로 다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다. 이뿐만 아니라 많은 일들이 일어났다. 오직 〈주인〉만이 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보낸 자’를 통해서만 그 말씀을 선포하신다.

30. 하나님께서 “돌아오리라.” 하신 말씀대로 앞으로도 계속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난다. 〈주〉가 세상에 있을 때까지, 그리고 1000년 동안 계속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땅을 중심하여 ‘섭리 세계’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난다. 고로 모두 힘차게 전도하고, 열심히 하여라.

31. 〈건강〉도 돌아오고, 또 〈본심의 세계〉로 돌아오고,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돌아와야 된다. 〈정신적인 세계, 영적인 세계, 육적인 세계〉 모두 진정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다.

32. 〈자기로 인해 하나님과 성령님의 상한 마음〉이 돌아와야 된다. 고로 늘 신경 쓰고, 생각을 깊이 해야 된다.

◎ 선생은 어제도 ‘돌아오게 하는 일’을 했습니다.

다 이야기하지 않지만, 선생이 지나간 길을 보면 해 놓은 것이 보입니다.

마치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그가 와서 세우리라.” 한 말씀대로 다시 온전히 만들어 놓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한 일이 있는데, 이것을 이야기해 주겠습니다.

33. 선생이 시대 십자가를 질 때였다. 그때 서울의 한 교회가 경매에 나와서 사려고 했는데, 그 교회 주인이 필요한 돈을 구해 은행에 갖다 넣어서 못 사게 됐다. 고로 그 교회가 다시 운영했는데, 이번에 또 다시 부도가 나서 그 교회를 다시 사게 된 것이다. 이는 99.9% 불가능한 일이다. 자기가 지은 교회이고, 자기가 가꾼 교회였다. 하나님이 ‘뜻’ 을 세우시면,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 독수리 발톱에 걸리면 다 잡는다. 이런 교회가 서울에 2개 있었는데, 다 해결됐다.

34. <인제 근방의 교회>도 성령님께서 먼저 봐 놓으시고, 사게 하셨다. 거기에는 옥녀탕이 하나 있는데, 이것을 보고 성령님께 “교회 보고 안 사고, 이 옥녀탕을 보고 살게요. 정말 멋있어요!” 했다. 그리고 그곳이 ‘성령의 상징’ 이라고 하니, 성령님께서 “맞다.” 하셨다. 이 옥녀탕은 물이 내려와서 파였는데, 5m 정도 되고 굉장히 멋있다. 돌이 수십만 년, 수백만 년 동안 파인 것이다. 전국에서 제일 멋있는 배경과 환경을 가진 교회다. 교회는 ‘별장’ 이다. 그 골짜기 근방 4km를 쓸 수 있고, 그곳에는 소나무가 꼭 짝 있어 있다. 그리고 교회 앞에 물이 흐르는 100m 계곡도 있다. 이런 곳을 하나님과 성령님께서 주셨다. 그냥 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연성전>을 멋있고 예쁘게 꾸며 놓으니, 하나님이 그와 같이 지구촌에 있는 모든 교회들을 다 멋있는 곳으로 주신 것이다.이같이 돌아올 것이 싹

돌아왔다.

35. 월명동 앞산을 사기 전이었다. 그때 우리가 앞산 능선을 다니니, 산 너머의 주인이 자기 땅이라고 하며 나무도 건들지 말라고 했다. 결국 측량을 해 보니, 그 주인 땅이 아니었다. 고로 그 뒤로는 우리가 그 길을 마음대로 다녔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다. 그래서 그때 “너희들이 하늘 측량을 해 버려라.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선포했다. <우리 것>인데 ‘남의 것’으로 알고 있는 것들이 있기에, <성약의 측량>을 해 버리니 기성의 교회들이 ‘우리 것’이 되었다.

36. 하나님 앞에 ‘하와’를 찾아 드리고, 아담과 하와가 찾지 못한 ‘시대 사람들’을 찾아 드리고, ‘1000년 역사의 시대 에덴동산’을 복직시켰더니, 하나님은 그때마다 ‘멋있는 작품’을 주셨다. <월명동>도 ‘금단의 열매 땅’이고, <성령 폭포>에도 ‘금단의 열매’가 있다. 월명동에는 ‘금단의 열매 형상’으로 생긴 작품이 많다. <월명동 자체>도 좌청룡, 우백호로 가운데는 텅 비게 만들어서 앉을 수 있게 만들었다. <금단의 열매>가 ‘의자’다. 하나님께서 이같이 신비하게 만들어 놓으셨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오죽 잘 만들어 놓으셨겠느냐.

◎ 전체에게 문제 하나 내겠습니다.

이 땅에 돌아오게 했는데, 특히 무엇을 돌아오게 했을까요?

37. <말씀>이 돌아왔다. 하나님께서 돌아오셔서 지금 ‘시대 말씀’을 맛있게 하고 계신다.

38. 요한복음 1장에 “그는 하나님의 육신이 되어 말씀한다.” 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으니, 그 자체가 ‘말씀’이다. 고로 내가 잠잘 때 깨워서 마이크를 대고 설교하라고 해도, 나는 말씀이 줄줄 나온다.
39. <말씀>을 중심해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했다.
40. <하나님의 사람>을 뺏기면, ‘말씀’도 뺏긴다.
41. 에덴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니, 말씀을 뺏겼다. 그 후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시어 ‘자녀급 말씀’을 주셨다. 그러고서 성약시대가 되어 6000년 만에 다시 말씀에 순종하고, 이성 죄를 안 짓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니 ‘신부급 말씀’을 주셨다. 이성과 악수도 안 할 정도로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의 법을 지켰다. 이 같이 하나님께 순종했기 때문에 ‘신부의 사명’을 받고, 깨끗하게 해서 ‘휴거 역사, 사랑 역사’까지 이뤄 하나님께 다 드린 것이다.
42. 하루가 1000년 같다고 했는데, <월, 화, 수, 목, 금, 토> - 하루를 1000년씩 봤을 때 6000년 만에 다시 사랑 역사가 돌아오게 되었다.
43. <깨끗하게 해서 하나님께 바치는 역사>가 그리도 크다.

44. 휴거 역사를 이루고,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뤘기에 큰소리치는 것이다. 구약급으로, 신약급으로 아무리 멋있게 산다고 해도, 구시대가 ‘성약급’ 으로 멋있게 살지는 못한다.

<기도>

사랑하시는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돌아오니, 우리에게 푸짐하게 말씀해 주시고, 주가 겪은 것도 말씀해 줍니다. 성부, 성자, 성신의 큰 능력과 권능이 이들 위에 함께하고, 그리고 병든 자, 아픈 자들이 영적, 육적, 신앙적인 것 다 고침을 받고 풀림을 받으며 다 돌아오게 해 주시고, 많은 생명들이 섭리 세계에 돌아오게 해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진전되고 계속 부흥되게 해 주시옵소서. 토요일에 이것저것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신학생 모임이 있어서 콘서트를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니, 3.16관의 영광을 받으시고 은혜에 은혜를 더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모두 뛰고 달리고,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오늘 또 월명동, 하나님의 궁에 우리들이 방문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하고, 그리고 차편 사고 없이 늘 잡아 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차장 사고가 많이 나니 모두 주차장을 다닐 때 심히 많이 조심을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늘 지켜 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것저것, 가지가지 구할 것이 많이 있사오니, 돌아오게 복직되게 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내가 원한 것, 하나님의 전들’ 이 우리 앞에 돌아오게 하심에 감사하고, 기적을 일으키고 표적 역사를 일으키심에 감사합니다.

영육 강건케 해 주시고, 심령과 마음이 돌아오게 해 주시고, 우리 기능이 날고 기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많은 생명들에게도 은혜의 강줄기가 차고 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민족, 세계가 다 그러하기를 원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 앞에 감사하며 간절히 축원하였습니다.

◎ 말씀도 마치고, 기도도 다 했습니다.